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결정요인*

Aging in Place of Elderly: Perception, Needs and Determinants

정소양 Jung So Yang**, 김현중 Kim Hyun Jo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demand of the elderly regarding Aging in Place (AIP) an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AIP willingness of the elderly. Through an AIP perception surve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patial scope of AIP extends beyond the home to the community,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AIP willingness and necessary support services depending on the age group and where they live. The binomial logit regression analysis showed home ownership status, length of residence, age, and area of residence directly impacted AIP willingness. In particular, housing and community satisfaction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AIP willingness of the elderly. The results can be used to establish community-based support policies for AIP in the super-aged era.

Keywords: Elderly, Aging in Place, Community-based Support Policy, Binomial Logit Regression Model

I. 서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높은 노인빈곤율, 노년부양비 급증,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요양돌봄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고령사회 대비가 중요하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시설보호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 이하 AIP)'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의료·돌봄·요양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P가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로만 언급되다가 점차 주거정책,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등에서 지향점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여건과 고령자들의 특성이 고려된 AIP의 개념과 정책적 지향점, AIP 지원의 주요 요소 등에

* 본 논문은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2023.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제1저자) | Research Fellow,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 Primary Author | jungsy@krihs.re.kr

*** 국립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 Ph.D. Candidate, Dept. of Urban System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khj1122452@gmail.com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수명 연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 등으로 고령자 집단 내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고령 세대와는 AIP 의향, 노후 준비도, 노인주택에 대한 선호도 등에서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1, 169; 정은하 2018, 34; 이윤경 2022, 1). 한편 고령자는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이동성 등도 떨어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Glass and Balfour 2003), 거주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건강 상태, 주택 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라 AIP 의향과 필요한 지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 대상의 구체적인 AIP 인식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을 통해 AIP의 개념과 저해요인, AIP 지원 필요성을 살핀다. 이후 전국 고령자 대상의 설문을 통해 고령자의 AIP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연령별, 거주지역별 AIP의 공간적 범위, AIP 의향과 필요한 서비스·시설의 차이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논의

1.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개념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가능한 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는데, 이를 반영한 개념이 'Aging in Place'이다(장희안, 한정란, 구본혜, 김정순 2022, 22). 우리나라에서는 AIP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다(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17, 13; 홍송이 2017, 229).

최근 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AIP의 개념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17, 22). 여기에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 그리고 사람 간 관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적 측면은 '가능한 한 오래', '사망 시기까지 가능하도록'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가족 돌봄의 축소, 급증하는 고령인구 등을 반영했을 때 '가능한 한 오래' 계속거주자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AIP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향점을 '사망 시기까지 가능하도록'으로 두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공간적 측면은 초기에는 살던 '집'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웃이나 지역사회(community)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바라보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다른 거처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AIP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권오정, 이용민, 하해화, 김진영 2014, 286). 관계적 측면에서는 익숙하고 친한 사람 외에도 노인돌봄기관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계속 사는 삶의 모습도 AIP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Bookman 2008).

AIP의 개념은 이처럼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Forsyth and Molinsky 2021, 193),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AIP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성공적이지 못한 노년기의 모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AIP가 고령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내 관계, 역할, 생활방식 등이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면 노년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집에서 살더라도 외로움, 무력감 등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우국희 2017, 265). 때로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살던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Stuck in Place'라고 부르기도 한다(Erickson et al. 2012;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26 재인용).

결국 다수의 고령자들이 선호하므로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를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개인의 여건, AIP 의향과 욕구에 따라 최적의 정주환경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하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AIP 실현의 공간 범위가 집 혹은 지역사회인지,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AIP 의향과 필요로 하는 지원 요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저해요인

1) 당사자 요인

노년기 AIP에 가장 도전이 되는 요인은 건강 악화와 이에 따른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이라는 '당사자 요인'이다. 평균적으로 75세를 기준으로 노화에 따라 노쇠,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외출,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낙상 등의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또한 질병 위험성도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2) 사회적 여건 변화

과거에는 주로 자녀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고령자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졌다(남기철 2020, 160). 그러나 점차 현대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었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와 고령 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평균수명 역시 높아지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관해 고령자 스스로 갖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 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¹⁾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점차 가족 내 고령자 돌봄 기능은 약화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가 AIP를 저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3) 사회 시스템적 요인

일반적으로 AIP의 가장 큰 저해요인을 고령자 개인의 건강 악화로 보곤 한다. 그러나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 시스템' 뒷받침에 따라 개인의 건강 여부는 AIP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AIP를 정책 지향점으로 삼고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체계를 갖춘 호주 등 고령화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들을 집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이에 비해 한국의 사회 서비스는 급증하는 고령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남기철 2020, 176). 일례로 주요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생활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아직 설계 및 운영상에 많은 한계가 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258). 이외 고령자 집단 내 다양한 수요에 대한 이해와 변화되는

1)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편으로 조사됨(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20, 257).

사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AIP의 주요한 저해요인 중 하나이다.

3.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필요성

1) 고령자 특성과 니즈(needs) 측면

AIP 지원 필요성은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대부분의 고령자가 원한다는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집'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오래 된 것에 대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랫동안 거주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이는 심리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은퇴나 소득 감소에 따라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령자들이 살던 집과 지역에 계속거주하려는 욕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여러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²⁾

2) 삶의 질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성 측면

AIP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지역 애착도 및 주민 참여도가 증가하는 등 개인 및 지역사회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영, 정분기, 정예은 2018, 182; 정은하 2018, 40).

AIP 개념이 정책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은퇴 이후 고령자들이 노년을 보내기에 좋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시설에서 보내던 과거

노년기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부터이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12). 고령자들의 보호·요양을 위한 '시설중심 보호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사례를 통해 검증되기도 했다. 실제 호주 정부가 시설 돌봄과 가정 돌봄에 사용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고령자 1인당 연간 평균 비용 면에서 가정 돌봄에 비해 시설 돌봄에 4.3배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2019).

3)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 실버주택, 요양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³⁾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실버주택의 경우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비한 공급은 미미하며, 고비용으로 이용 가능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 불가능, 다수의 노인학대 신고사례 등으로 국민 대부분은 가능하면 가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제가보호후선'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등 AIP를 지향하는 제도이나, 그간의 운영 결과 재가급여 이용은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13).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시설 이용률은 OECD 회원국 보다 높은 편이다. 높은 시설 이용률 자체보다는 이용 필요도가 낮은 경증 노인들의 불필요한 시설 이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몸이 불

2) 1997년에 이미 AIP가 노인돌봄정책의 주요 철학이 된 호주의 경우, 2005년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 64.6%가 현재 집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고 조사되었으며(정용문 2013, 851), 미국 AARP가 2021년에 실시한 "Home and Community Preferences Survey"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 77%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함(AARP. <https://www.aarp.org/home-family/your-home/info-2021/home-and-community-preferences-survey.html>, 2023년 5월 29일 검색).

3) 2020년 말 현재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인원은 15,414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0.18%이며,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모두 포함해도 2.19%에 불과함(장희안, 한정란, 구본혜, 김정순 2022, 22).

편해도 집에 살고 싶은 고령자들을 위한 재가 서비스가 불충분한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최성은 2022, 40). 이러한 제도적 미비함은 개인 삶의 질 저하, 국가적인 비용 부담 증가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각 수요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정비와 운영이 필요하다.

III.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고령자 인식 및 영향요인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 개요

설문조사는 AIP의 실수요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AIP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AIP를 위해 필요한 주요 지원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예비조사로 고령자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⁴⁾를 통해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으며, 2차례의 파일럿 서베이를 거쳐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고령자가 인식하는 AIP의 범위',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AIP 의향', 그리고 'AIP 지원을 위한 지원서비스 수요'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표 1>과 같이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84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인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설계 시 개인 특성인 연령, 성별에 따른 집단별로 일정 표본 이상을 설계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조사 결과 거주지역이 고령자의 AIP 의향과 수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나누어 고령자 표본을 설계하였다.

이외,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거주기간(곽인숙 2011; 권오정, 김진영 2019;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20), 배우자 유무(곽인숙 2011; 박준범, 마강래 2020;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20), 가구형태(권오정, 김진영 2019; 이미애 2022), 소득수준(곽인숙 2011; 박준범, 마강래 2020;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20), 건강상태(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외 2020), 주택유형(곽인숙 2011, 박준범, 마강래 2020), 거주유형(자가유무)(곽인숙 2011; 박준범, 마강래 2020; 이미애 2022) 등을 응답자 특성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응답자의 일반사항

성별은 남자 49.8%, 여자 50.2%로 조사되었으며, 연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조사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을 나눠서 조사(전국 대상)
조사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유효표본	847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36%p)
조사기간	2023년 7월 27일 ~ 8월 17일(약 3주간)

4) 청주시 도심지역,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총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토픽가이드로 주제별로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2023년 6월 2일에 진행함.

령별로는 60대 47.8%, 70대 35.5%, 그리고 80대가 16.6%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고령자 비율은 대도시 38%, 중소도시 38.3%, 군 지역 23.7%이다.

현재 집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현 읍면동 거주기간 역시 20년 이상이 6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정착 유형의 경우 '타 지역에서 이주'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9%, 가구 형태는 '부부가구'가 52.7%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의 경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가 51.5%이며, 이외 '일하지 않음'이 48.5%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평소 건강상태의 경우 '일상생활 지장 없음'이 56.4%로

가장 높았다. 거주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이 49.5%이며, 그다음 단독주택 29.5%, 연립/다세대가 20.5%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형태의 경우 자가 소유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2〉 참조).

2.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인식

1) 고령자 AIP의 공간적 범위

(1) 고령자에게 '동네'란?

고령자가 생각하는 '동네'의 의미는 '편의시설, 종교 시설, 주민센터 등이 있는 범위'(47.8%), '일상적으로 활동하며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 사는 범위'(22.6%)순

표 2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전 체		(847)	100.0	전 체		(847)	100.0
권역	수도권	(375)	44.3	혼인 상태	미혼	(23)	2.7
	지방	(472)	55.7		기혼 유배우자	(669)	79.0
	대도시	(322)	38.0		기혼 무배우자	(155)	18.3
거주 지역	중소도시	(324)	38.3	가구 형태	1인 가구	(105)	12.4
	군지역	(201)	23.7		부부 가구	(446)	52.7
성별	남자	(422)	49.8		부부+자녀 가구	(221)	26.1
	여자	(425)	50.2	본인+자녀 가구	(67)	7.9	
연령	60대	(405)	47.8	기타	(8)	0.9	
	70대	(301)	35.5	경제 활동	정기적 수입	(265)	31.3
	80대	(141)	16.6		부정기적 수입	(171)	20.2
5년 미만	(50)	5.9	일하지 않음		(411)	48.5	
집 거주 기간	5-10년 미만	(170)	20.1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17)	13.8
	10-20년 미만	(282)	33.3		100-200만 원 미만	(162)	19.1
	20년 이상	(345)	40.7		200-300만 원 미만	(189)	22.3
	읍면동 거주 기간	5년 미만	(34)		4.0	300-400만 원 미만	(127)
5-10년 미만		(95)	11.2		400-500만 원 미만	(89)	10.5
10-20년 미만		(178)	21.0		500만 원 이상	(163)	19.2
정착 유형	20년 이상	(540)	63.8		평소 건강 상태	일상생활 지장 없음	(478)
	지역 토박이	(111)	13.1	일상생활 약간 지장		(327)	38.6
	귀농/귀촌을 위해 이주	(45)	5.3	일상생활 지장 많음		(42)	5.0
	타 지역에서 이주	(681)	80.4	주택 유형	단독주택	(250)	29.5
기타(일시 거주 등)	(10)	1.2	연립/다세대		(174)	20.5	
거주 형태	자가	(718)	84.8		공동주택	(419)	49.5
	임대(전/월세)	(114)	13.5	기타	(4)	0.5	
	무상/기타	(15)	1.8				

주: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인구 규모(100만 명 기준)로 구분함.

5) 본 설문에서 의미하는 '동네'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함. 고령자에게 가장 친숙하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인 동네를 설문에 활용하였음.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권 범위(70.4%)를 동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지금 살고 있는 읍면동'(19.5%)과 '지금 살고 있는 시군구'(10.2%) 등 29.6%가 행정구역상 범위를 동네로 인식하였다.

'동네'라는 공간 범위는 대부분(79.7%) 도보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로 인식하였고, 도보로는 20분 이내(41.0%), 차량으로 10분 이내(50.6%)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동네의 범위를 걸어서 오가는 범위로 인식한 응답자의 평균은 '도보 18.1분'이며, 차량으로 오가는 범위로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차량 15.7분'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도보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동네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으나, 군 지역은 도시 지역(대·중소도시)에 비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차량 통행 중심의 생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 등 생활공간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0대에서 8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보보다는 차량으로 오가는 범위로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평균 소요 시간은 도보의 경우 60대 18분, 80대는 16.8분, 차량의 경우 60대 16.8분, 80대 13.0분으로 줄어들어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활반경이 좁아지는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표 3〉 참조).

(2) 고령자 AIP 실현의 공간 범위

AIP를 원하는 공간적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여생 동안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의 최대 범위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34.2%)', '지금 살고 있는 집(18.8)', '지금 살고 있는 시군구(14.8%)', '지금 살고 있는 읍면동(12.0%)'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상관없음'은 20.2%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집'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61%)'을 AIP 실현의 범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즉 AIP의 실현장소가 주택을 넘어 지역사회(community)로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고령자가 생각하는 동네(지역사회)의 범위

구분	(사례 수)	교통수단		소요시간		
		걸어서(%)	차량(%)	걸어서(평균: 분)	차량(평균: 분)	
전체	(847)	79.7	20.3	18.1	15.7	
거주 지역	대도시	(322)	83.2	16.8	19.2	16.8
	중소도시	(324)	83.3	16.7	17.4	17.3
	군 지역	(201)	68.2	31.8	17.1	13.4
연령	60대	(405)	81.5	18.5	18.0	16.8
	70대	(301)	79.4	20.6	18.7	15.9
	80대	(141)	75.2	24.8	16.8	13.0

표 4 노후에 떠나고 싶지 않은 최대 범위

(단위: %)

구분	(사례 수)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지금 살고 있는 읍면동	지금 살고 있는 시군구	상관없음	
전체	(847)	18.8	34.2	12.0	14.8	20.2	
거주 지역	대도시	(322)	23.3	26.4	9.6	17.7	23.0
	중소도시	(324)	19.1	34.0	9.3	14.5	23.1
	군 지역	(201)	10.9	47.3	20.4	10.4	10.9
연령	60대	(405)	18.0	27.4	10.4	17.0	27.2
	70대	(301)	22.9	37.5	12.6	12.6	14.3
	80대	(141)	12.1	46.8	15.6	12.8	12.8

2) 고령자의 AIP 의향

(1) 건강이 유지된다면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69.1%)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16.4%는 같은 동네 다른 주택으로의 이사를, 14.5%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표 5〉 참조). 현 거주주택 계속거주 의향은 군 지역(78.6%) 거주자, 연령이 높을수록, 현 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부가구(7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동네 다른 주택 이사 의향은 대도시(19.9%) 거주자, '본인+자녀 가구'(23.9%), '임대 거주자'(29.8%)

일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아 살기 불편(61.9%)'하기 때문, '주거비용 절약(15.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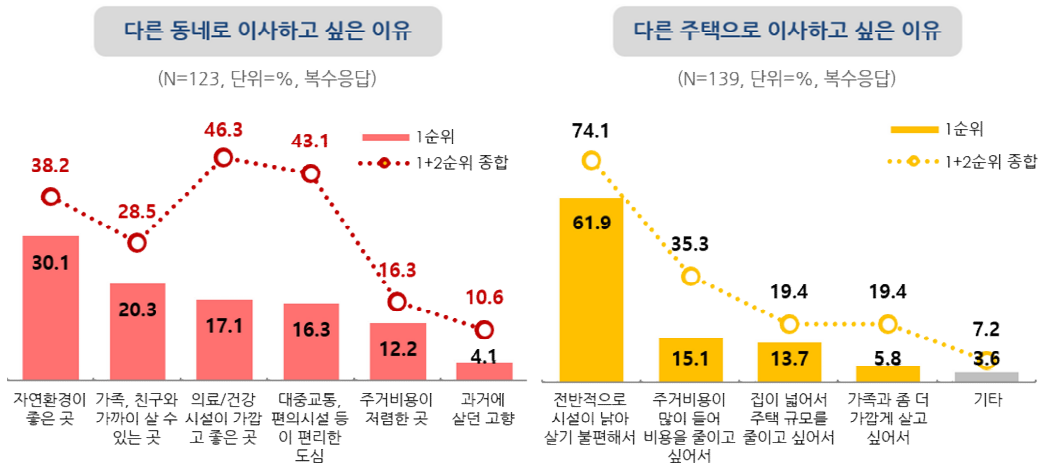
다른 동네로 이사할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60대(21.2%), 현 주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본인+자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자연환경(30.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는 '의료·건강시설이 가깝고 좋은 곳'(46.3%),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이 편리한 도심'(43.1%)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 60대에 가까울수록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의향이 높

표 5 (건강 유지 시)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전체	(847)	14.5	16.4	69.1	
거주 지역	대도시	(322)	15.2	19.9	64.9
	중소도시	(324)	15.4	17.3	67.3
	군 지역	(201)	11.9	9.5	78.6
연령	60대	(405)	21.2	17.5	61.2
	70대	(301)	10.3	17.9	71.8
	80대	(141)	4.3	9.9	85.8

그림 1 다른 동네,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은 반면, 군 지역 거주자이면서 특히 80대는 ‘가족, 친구와 가까이 살 수 있는 곳’, 의료·건강시설이 가깝고 좋은 곳으로 이주할 의향을 보였다.

(2)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지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그럼에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다. 거동 불편 시 계속거주 의향은 대도시(45.3%) 거주자, 80대(43.3%), ‘배우자 있는 기혼자’(42.6%), ‘부부+자녀 가구’(50.7%), ‘본인+자녀 가구’(49.3%),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건강상태(54.8%)인 경우, ‘공동주택’(47.7%)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실버타운으로 이사’(18.1%), ‘가족, 친구 근거리로 이사’(14.6%), ‘가족과 함께 거주’(14.4%), ‘공공 노인지원주택으로 이사’(10.9%)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거주가 어려울 때가 되면, 가족 등과 동거·근거리 거주를 하던지(29%) 또는 민간공공 차원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시설로 들어가고 싶다(29%)는 의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6) 참조.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거동 불편 시에도 현재 집에 살고 싶다는 의향은 비슷하나, 60대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지원시설 이주 의향(60대 34.3%>80대 19.2%)이 더 높고, 80대에 가까울수록 가족 등과의 유대 안에 살고 싶은 의향(80대 36.9%>60대 23%)

이 더 높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건강이 유지된다면 계속 거주 의향이 군 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거주자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현재 집에서 살겠다는 의향이 34.3%로 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집이 아닌 거주지로서 시설에 대한 의향은 대도시(33.2%), 중소도시(31.2%), 군지역(18.4%)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가족 등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형태에 대한 의향은 군지역이 46.8%로 매우 높으며, 다음 중소도시(26.5%), 대도시(20.4%)순으로 나타났다.

3) AIP 지원의 필요 요소

(1) 고령자가 겪는 일상생활 어려움

고령자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집을 수선·유지하는 것’(67.5%)과 ‘강도 높은 집안일을 하는 것’(64.0%) 등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관리하거나 다소 힘이 드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 2명 중 1명의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49.1%)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을 느낀 것’(39.2%), ‘가족 등에게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33.2%) 등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및 무력감, 높아진 가족 의존도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고령자 10명 중 3~4명이 느끼고 있다고

표 6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지

(단위: %)

구분	(사례 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	자녀·형제자매, 친구의 근거리로 이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 이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 노인지원 주택 이사	기타	
전체	(847)	41.4	14.4	14.6	18.1	10.9	0.6	
거주 지역	대도시	(322)	45.3	10.2	10.2	21.7	11.5	0.9
	중소도시	(324)	42.0	12.0	14.5	18.5	12.7	0.3
	군 지역	(201)	34.3	24.9	21.9	11.4	7.0	0.5
연령	60대	(405)	42.2	10.9	12.1	20.2	14.1	0.5
	70대	(301)	39.5	15.6	17.9	16.6	9.6	0.7
	80대	(141)	43.3	22.0	14.9	14.9	4.3	0.7

나타났다. 이외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것 (34.1%)'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7) 참조.

(2) AIP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AIP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주택, 일상지원, 의료, 돌봄, 안전, 여가교류 등 부문별로 질문하였다.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와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선'(49.1%) 등 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필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경향은 응답

자 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지장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서비스 필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양한 사회·문화·여가활동 지원'(42.7%), '이동·동행지원' (42.5%), '안전 지원'(40.9%) 등에 대해서도 과반 가까운 고령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여가활동 지원'의 경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8%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 상태 여부나 다른 특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참조.

표 7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집을 수선·유지하는 것	강도가 높은 집안일 하는 것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	안전·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는 것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것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족과 교류하는 것	다치거나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을 느낀 것	가족 등에게 짐이라고 느끼는 것	
전체	(847)	67.5	64.0	49.1	29.8	39.7	34.1	30.7	34.0	39.2	33.2	
거주 지역	대도시	(322)	66.5	64.6	53.4	26.7	38.8	33.2	28.3	32.6	41.0	28.6
	중소도시	(324)	63.6	60.8	42.3	34.6	42.3	39.5	36.7	39.5	40.1	38.9
	군 지역	(201)	75.6	68.2	53.2	26.9	36.8	26.9	24.9	27.4	34.8	31.3
연령	60대	(405)	58.8	52.3	36.0	19.5	32.6	28.6	27.9	26.7	34.6	24.9
	70대	(301)	73.1	69.4	51.8	33.6	45.5	38.2	34.6	36.2	36.2	35.2
	80대	(141)	80.9	85.8	80.9	51.1	47.5	41.1	30.5	50.4	58.9	52.5

그림 2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BASE : 전체(N=847)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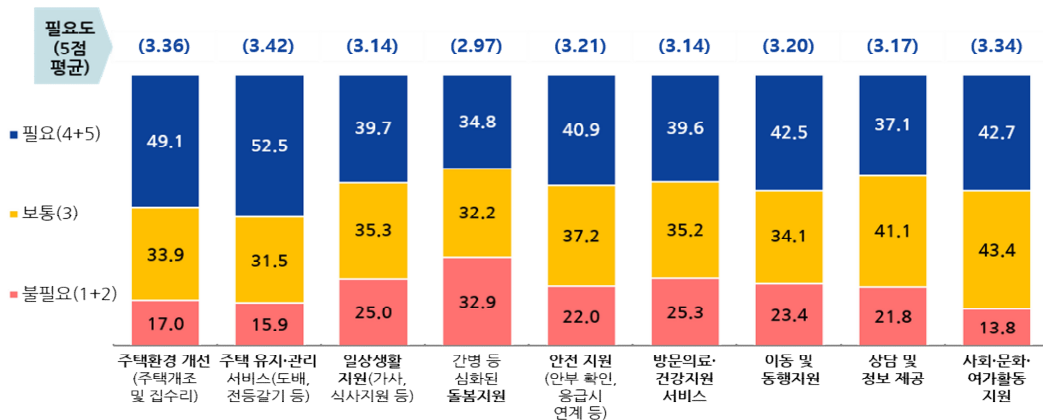


표 8 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근거리 필요 시설

(단위: %)

구분	(사례 수)	일상용품 구매 장소	보건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	
전체	(847)	34.6	39.9	4.5	9.9	4.8	6.3	
거주 지역	대도시	(322)	24.8	46.9	3.4	9.3	6.2	9.3
	중소도시	(324)	33.0	37.0	5.9	13.0	4.6	6.5
	군 지역	(201)	52.7	33.3	4.0	6.0	3.0	1.0
연령	60대	(405)	25.4	45.2	4.4	9.1	7.4	8.4
	70대	(301)	37.5	40.2	5.3	8.0	3.7	5.3
	80대	(141)	54.6	24.1	2.8	16.3	0.0	2.1

(3) AIP를 위해 근거리 필요 시설

AIP를 위해 가까운 거리에 필요한 시설로는 ‘보건의료기관’(39.9%)과 ‘일상용품 구매장소’(34.6%)를 꼽은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적시에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노년기 AIP의 핵심 시설이라는 점을 시사한다(〈표 8〉 참조).

연령별로는 60, 70대는 보건의료기관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80대(54.6%)는 일상용품 구매장소를 가장 필요한 근거리 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은 보건의료기관을 가장 필요한 시설로, 군 지역은 일상용품 구매장소가 가장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반경이 좁아지고 구매 방법이 제한적인 데 따른 구매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군 지역, 특히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거주자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기본적인 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3.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분석방법

고령자의 연령, 성별, 소득,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 다양한 특성이 AIP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AIP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AIP 모형은 주택 계속거주 모형과 동네 계속거주 모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를 통해서는 주택 계속거주 의사,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후자를 통해서는 동네라는 공간적으로 확장된 범위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을 갖게 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회귀분석 모형은 모두 이산적(discrete) 형태의 종속변인, 즉 계속거주는 1로, 비계속거주는 0으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이다. 이항적인 형태의 종속변인에 적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한편, 회귀분석모형에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독립변수 중 하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

6) 군 지역 거주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결과, 주로 방문하는 병원, 마트의 경우 멀리 떨어진 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 시 몸이 어느 정도 불편한 경우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이용이 어려워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나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상용품 구매는 병원 등을 위해 외출할 때 구매장소에 들르거나 대부분은 없는 채로 버티며 지내기도 한다고 응답함. 한편, 보건소에서 경로당으로 1년에 한두 번 출장 검진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균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므로, 개별 독립변인의 한계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고령자의 AIP 의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한계효과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계효과와 평균(average marginal effect)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은 SAS 9.4의 QLIM Procedure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 변인

종속변인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계속거주 의향과 현재 동네에 대한 계속거주 의향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크게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 특성, 지역사회 범위와 만족도, 그리고 거주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및 가구소득, 건강상태가 해당된다. 거주 특성은 주로 주택과 관련된 특성으로 정착유형, 거주 형태(자가소유 유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

유형과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 범위 및 만족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지역사회 범위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동네 범위까지의 도달시간(분)을 보았으며, 주택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불만족(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만족(대체로 만족, 매우 불만족) 척도로 묶어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 차이를 의미한다(〈표 9〉 참조).

3) 분석 결과

고령자 AIP 의향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택 계속거주 모형과 동네 계속거주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확인을 위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모형에서 χ^2 값은 1%의 유의수준을 만족하였다.

표 9 지역사회 계속거주 영향요인의 변인 설명

변인		설명	
종속 변인	주택 계속거주	현 주택 계속거주=1, 이주=0	
	동네 계속거주	현 동네 계속거주=1, 이주=0	
독립 변인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참조집단)
		연령	60대(참조집단), 70대, 80대
		배우자 유무	있음=1, 없음=0(참조집단)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참조집단)
		건강상태	일상생활 지장 없음(참조집단), 약간 지장, 지장 많음
	거주 특성	정착유형	지역 토박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 기타(참조집단)
		거주형태	자가=1, 차가=0(참조집단)
		주택유형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공동주택(참조집단)
		주택 거주기간	5년 미만(참조집단),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40년 미만, 40년 이상
	지역사회 범위 및 만족도	지역사회 범위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도보·차량 이동시간(분)
		주택 만족도	불만족(참조집단), 보통, 만족
		지역사회 만족도	불만족(참조집단), 보통, 만족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참조집단)	

7)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가요?"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 주택 계속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 동네 계속거주 의향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음.

표 10 주택 및 동네 계속거주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독립변인			주택 계속거주 모형			동네 계속거주 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인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	0.2303		1.259	0.0318	0.2270	1.032
	연령	70대	0.1543		1.167	0.2457	0.2824	1.279
		80대	0.5996 ***		1.821	1.1673 ***	0.2870	3.213
	배우자 유무	있음	0.0580		1.06	0.3256	0.2721	1.385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997		1.648	0.5241	0.3946	1.689
		200-400만 원	-0.1349		0.874	0.1494	0.3489	1.161
		400-600만 원	-0.2866		0.751	0.2898	0.3754	1.336
	건강상태	약간 지장	0.0426		1.043	0.0509	0.2423	1.052
지장 많음		-0.1973		0.821	-0.3496	0.4991	0.705	
거주 특성	정착유형	지역 토박이	2.0138 **		7.492	1.1944	0.7803	3.301
		다른 지역에서 이주	1.6777 *		5.353	1.4688 **	0.7185	4.344
	거주형태	자가	0.9515 ***		2.59	0.5636 **	0.2840	1.757
	주택유형	단독주택	0.4977 **		1.645	-0.2021	0.2851	0.817
		연립·다세대주택	0.1237		1.132	-0.0430	0.3057	0.958
	주택 거주기간	5-10년	-0.2327		0.792	0.1105	0.2688	1.117
		10-20년	-0.2587		0.772	0.1555	0.3036	1.168
		20-40년	-0.1416		0.868	0.2430	0.4297	1.275
		40년 이상	0.0195		1.02	1.5251 **	0.6666	4.596
	지역 사회 범위 및 만족도	지역사회 범위		0.0004		1	0.0011	0.0111
주택 만족도		보통	1.5706 ***		4.81	0.5049	0.3552	1.657
		만족	2.5508 ***		12.818	1.1339 ***	0.3669	3.108
지역사회 만족도		보통	1.1107 ***		3.036	1.1053 ***	0.3812	3.02
	만족	1.4324 ***		4.189	1.7350 ***	0.4009	5.669	
거주지역	대도시		-0.3223		0.724	-0.1945	0.3335	0.823
	중소도시		-0.4802 *		0.619	-0.2611	0.3213	0.77
	상수항		-5.0959 ***		-	-3.1681 ***	0.9676	-

주: 1) (주택 계속거주 모형) N=847, AIC=638.199, -2 Log L=586.199, $\chi^2=122.125^{***}$

2) (동네 계속거주 모형) N=847, AIC=894.843 -2 Log L=842.837, $\chi^2=196.680^{***}$

3) ***p<0.01, **p<0.05, *p<0.1

(1) 주택 계속거주 모형

주택 계속거주 모형에서는 연령, 정착유형, 거주형태, 주택유형, 주택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그리고 거주지역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연령은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60대에 비해 주택 계속거주 의사가 높았는데, 이는 고령일수록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꺼리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착유형은 임시거주 등 기타 참조집단에 비해 ‘지역토박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 후 정착해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 계속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자가 거주자가 차가 거주자에 비해 주택 계속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점유형태의 경우 계속거주 의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이경영, 정문기, 정예은 2018; 고은아 2023) 결과와 일치한다. 주택유형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공동주택 거주자에 비해 주택 계속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고, 계속거주 의향도 일반적으로 높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주택 계속거주 모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주택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 변인에 대한 것이다.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고령자일수록 주택 계속거주 의사가 높은 현상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동네에 대한 만족이 계속거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거 및 외부환경 만족

도가 계속거주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김용진, 김성희 2016; 이경영, 정문기, 정예은 2018; 김영주, 유병선 2012; 고은아 2023)과 유사한 결과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군 지역 거주자의 주택 계속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밖에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건강상태, 거주기간, 지역사회 범위 등은 영향요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네 계속거주 모형

동네 계속거주 모형의 경우, 주택 계속거주 모형에 비해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연령, 정착유형, 거주형태, 거주기간, 주택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표 10〉 참조).

주택 계속거주 모형과 동일하게 80대 이상 고령자의 동네 계속거주 의향은 6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는 차가 거주자에 비해 동네 계속거주 의향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기간의 경우, 40년 이상을 거주한 고령자는 5년 미만 거주한 참조

집단에 비해 동네 계속거주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는 동네 계속거주 의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성별,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건강상태, 주택유형 및 거주지역 등은 동네 계속거주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인별 한계효과 분석

주택 계속거주 모형과 동네 계속거주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독립변인이 AIP 의향에 끼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 계속거주 모형에서는 주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계효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착유형, 지역사회 만족도 변인순으로 한계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동네 계속거주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만족도의 한계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거주기간, 정착유형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고령자의 주택 계속거주 의향과 동네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의 한계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한 특징이다. 연령, 거주형태 등 고령자 개인의 한두 가

표 11 주택 및 동네 계속거주 모형의 변인별 한계효과 분석 결과

주택 계속거주 모형		동네 계속거주 모형	
독립변인	한계효과	독립변인	한계효과
주택 만족도(높음)	0.415	지역사회 만족도(보통)	0.181
정착유형(토박이)	0.328	주택 거주기간(40년 이상)	0.159
정착유형(다른 지역에서 이주)	0.273	정착유형(다른 지역에서 이주)	0.153
주택만족도(보통)	0.256	연령(80대)	0.122
지역사회 만족도(만족)	0.233	주택 만족도(높음)	0.118
지역사회 만족도(보통)	0.181	지역사회 만족도(만족)	0.115
거주형태(자가)	0.155	거주형태(자가)	0.059
연령(80대)	0.098		
주택유형(단독)	0.081		
거주지역(군 지역)	0.078		

주: 통계적 유의성(p<0.1)을 확보한 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지 개별 특성에 비해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의 한계효과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AIP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과 지역사회 환경을 고령자가 되어서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으로 개선해 가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AIP의 개념과 저해요인, 향후 지원 필요성을 정리하고, 실수요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AIP의 공간적 범위, AIP 의향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고령자 개인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 중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AIP는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령자가 노화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약해진 가족 돌봄 등 변화되는 사회적 여건과 아직 미비한 사회시스템 수준이 AIP 실현의 저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AIP는 살던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원하는 고령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며, 시설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충분한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점과 수요 대비 부족한 요양시설 공급,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에서 적극적으로 AIP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령자 대상의 인식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AIP의 ‘P(place)’는 집이 아닌 좀 더 확장된 지역사회(동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령자에게 ‘지역사회’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상생활권을 의미하며, 도보로 약 18분(차량 15.7분) 정도의 거리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권

의 범위는 좁아지며, 군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도보보다 차량 이동거리로 동네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AIP 의향은 높은 편이다. 고령자 10명 중 8.5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AIP 의향은 대체로 높아진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고 건강이 악화된다면, AIP 의향은 고령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도시 지역보다 높은 AIP 의향이 거동 불편 시에는 평균보다 낮게 떨어진다. 주택 내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군 지역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AIP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울 때 희망 거주지에 있어서 군 지역 고령자는 도시 지역 고령자에 비해 시설보다는 ‘가족 등 동거근거리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집을 수선·유지하는 것’이며,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선’으로 조사되었다. AIP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대한 지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IP를 위해 근거리에 필요한 시설로 ‘보건의료기관’과 ‘일상용품 구매장소’가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지고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고령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은 ‘일상용품 구매장소’로 조사되었다.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택 계속거주 의향에는 자가 유무, 정착유형, 연령, 주택유형, 거주지역이 영향을 미치며, 동네 계속거주에는 거주기간, 정착유형, 연령, 자가 유무 등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주택 및 동네 계속거주 의향에 현재 거주하

는 주택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AIP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 AIP 지원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생활권인 지역사회 단위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사회 단위로 계획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지원 수요가 파악되고,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협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8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AIP 의향이 매우 높으며, 이주 의사는 거의 없�어지고, 시설 거주에 대한 거부감은 높은 대신 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와 이웃 간 유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AIP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경로당 등의 거점시설과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망 등을 활용한 일상지원(식사, 일상용품 구매 등)이 중요하다. 공적 돌봄이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가족 내 돌봄의 가능성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60대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AIP 의향과 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는 대신 시설 거주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계층 수요에 발맞춘 노인지원주택 유형 발굴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AIP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 지역 고령자의 경우 건강할 때는 높았던 AIP 의향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평균보다 낮아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일상용품 구매 등의 기본적인 생활수요가 편리하게 충족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에 대한 기대, 가족 등과 근거리 거주 등을 선호하며 시설에 대한 낮은 선호 등이 조사되었다. 군 지역 고령자의 경우

자칫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에 고착되는 ‘stuck in place’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내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되, 경로당 등을 활용한 그룹홈(Group Home), 수요응답형 차량을 이용한 이동 지원, 동네로 물품배달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한 AIP 지원은 살고 있는 주택을 편리하게 유지·관리하고 개선해 가는 부분이다. 노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게 된다. 집 안팎의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체 기능의 저하에 따른 낙상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지는 시기이다. 아직까지 주택 개조에 대한 정책 지원은 수선·유지·급여사업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서종균 2022, 24). 문턱 없애기,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은 크지 않은 비용으로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거두는 수단이다(Nissim 2008). 노화에 대응한 주택 개조에 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민간 차원의 참여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살던 집을 고령이 되어서도 편리하게 고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지역사회 내 적절한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P가 가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주요 서비스들의 연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서비스로의 접근성 제고 등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고령자의 여건과 실제적인 수요가 좀 더 세심하게 반영된 연구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고은아. 2023. 노인의 주거환경이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3권, 5호: 801-825.
Go Eunah. 2023.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in aging in place: Focusing in comparison of region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3, no.5: 801-825
2. 광인숙. 2011. 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고령노인기를 가정하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2권, 6호: 83-95.
Kwak Insuk.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on decisions by the super-aged on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 no.6: 83-95.
3. 권오정, 이용민, 하해화, 김진영, 염혜실. 2014. 노년층의 지역 내 계속 거주 이유에 관한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52권, 3호: 285-299.
Kwon Ohjung, Lee Yongmin, Ha Haehwa, Kim Jinyoung and Yeom Hyesil. 2014. Reasons for senior's aging in place within their community. *Human Ecology Research* 52, no.3: 285-299.
4. 권오정, 김진영. 2019. 장노년층의 Aging in Place 의사 여부와 이에 따른 관련 변인 특성 차이.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권, 3호: 77-85.
Kwon Ohjeong and Kim Jinyoung. 2019. Intention in aging in place of middle aged and elderly and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 no.3: 77-85.
5. 김영주, 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권, 6호: 219-226.
Kim Youngjoo and Yoo Byungsun. 2012. Effec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sense of community on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 of urban residents: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 no.6: 219-226.
6. 김용진, 김성희. 2016.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권, 5호: 405-411.
Kin Younjin and Kim Seonghee. 2016.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 town residents' living intention: Focused on the residents of Bundang New Town. *Journal of the Korea Acedemia-Industrial* 17, no.5: 405-411.
7. 남기철. 2020. 한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주거지원: 케어 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권, 3호: 158-181.
Nam Kicheol. 2020. Community care and housing support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27, no.3: 158-181.
8. 박준범, 마강래. 2020. 고령자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8권, 4호: 5-21.
Park Junboem and Ma Kangrae. 2020. A study on aging in place and social relational factors.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38, no.4: 5-21.
9. 서종균. 2022.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정책 과제. *건축과 도시공간* 48권: 21-27.
Seo Jonggyun. 2022. Housing policy challenges for community residence of the elderly. *Architerture and Urban Space* 48: 21-27.
10. 우국희. 2017. 섬 지역 고령자의 장소경험과 의미-Aging in Place는 가능한가? *비판사회정책* 54호: 260-304.
Woo Kungee. 2017. Place experience of older adults in Island Area: Is Aging in Place possible?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4: 260-304.
11. 이경영, 정문기, 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권, 2호: 179-210.
Lee Kyungyoung, Jeong Moongi and Jung Yeeun. 201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continual residence intention: Focusing on comparison among five regions in Seoul.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7, no.2: 179-210.
12. 이미애. 2022.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20권, 9호: 131-139.
Lee Meeae. 2022. The effects of older persons' inclination to choose agin in place(aip): Focusing in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 no.9: 131-139.
13.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Yunkyung, Kang Eunna, Kim Sejin and Byun Jaegwan. 2017. *Suggestion Of Long-Term Care System Reform In View Of Aging In Place(AIP)*.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4.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외.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Yunkyung, Kim Sejin, Hwang Namhee, Lim Jeongmi, Joo Bohye, Namgung Eunha and Lee Sunhee et al. 2020. *2020 Survey on Senir Citizen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5. 이윤경. 2022. 인구 초고령사회와 미래 정책 이슈. 소비자정책 동향 121호. 음성: 한국소비자원.
- Lee Yunkyung. 2022. Super-aging society and future policy issues. *Consumer Policy Trends* 121. Eumseong: Korea Cunsomer Agency.
16. 장희안, 한정란, 구본혜, 김정순. 2022. Q방법론을 활용한 Aging in Place 선호 유형 분석. 노년교육연구 8권, 1호: 21-38.
- Jang Heean, Han Jungran, Ku Bonhye and Kim Jeongsoon. 2022. Aging in Place preference type analysis using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8, no.1: 21-38.
17.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1.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Jeong Kyeonghee, Oh Younghee, Lee Yunkyung and Park Bomi. 2011. *A Study On The Diversity Of Baby Boomers' Liv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8. 정용문. 2013. 호주의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ageing-in-place)' 지원 정책이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노년학 33권, 4호: 847-863.
- Jung Yongmoon. 2013. Aged care policies supporting ageing-in-place in australi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aged care polic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3, no.4: 847-863.
19. 정은하. 2018.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위한 초고령 노인의 생활 특성 및 지역사회 애착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6권, 2호: 32-54.
- Jeong Eunha. 2018.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attachment of very old people to revitalize community care. *The Journal of Korean Long Term Care* 6, no.2: 32-54.
20. 최성은. 2022.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재정포럼 308호: 26-46.
- Choi Seongeun. 2022.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financial policies for elderly care in the aging era. *Financial Forum* 308: 26-46.
21. 홍송이. 2017. Aging-in-Place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비판적 이해: 싱가포르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3권, 1호: 227-254.
- Hong Songhee. 2017. Critical review on singapore ag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aging-in-place. *Journal of Social Science* 43, no.1: 227-254.
22. AARP. Despite Pandemic, Percentage of Older Adults Who Want to Age in Place Stays Steady. <https://www.aarp.org/home-family/your-home/info-2021/home-and-community-preferences-survey.html> (accessed May 29, 2023).
23. Ann Forsyth and Jennifer Molinsky. 2021. What is Aging in Place?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Housing Policy Debate* 31, no.2: 181-196.
24.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2019. What's needed to make 'ageing in place' work for older Australians. *Brief of AHURi* 10 Dec.
25. Bookman, Ann. 2008. Innovative models of aging in place: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for an aging population. *Community, Work & Family* 11, no.4: 419-438.
26.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3.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 Program Manual 2023-2024*.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7. Glass, T.A. and Balfour, J.L. 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In: Kawachi, I. and Berkman, L.F., Eds., *Neighborhoods and Health.*, 303-3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8. Nissim, R. 2008. Universal Housing Universal Benefits. A VCOSS discussion paper on universal housing regulation in Victoria. Melbourne: Victor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 논문 접수일: 2024. 7. 20.
- 심사 시작일: 2024. 8. 2.
- 심사 완료일: 2024. 8. 13.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고,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령자 대상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는 집보다는 확장된 범위인 지역사회라는 점과 고령자의 연령대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거주형태, 거주기간, 거주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고령자 계속거주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주제어:** 고령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역사회 기반 지원 정책, 이항로짓회귀모형
-

